



국제여객선 이용객 182만명으로 32% 늘어 지난해 컨수송량은 29만TEU로 15% 증가

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·중국·러시아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이용객은 182만 2,000명으로 전년(137만 9,000명) 보다 32.1%(44만 3,000명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컨테이너 수송량은 29만 5,000TEU로 2003년의 25만 6,000TEU 보다 15.2%(3만 9,000TEU) 늘어났다.

특히, 지난해 국제여객선 이용승객 가운데 한국인은 118만 7,000명, 외국인인 63만 5,000명으로 집계됐다. 또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수송된 컨테이너화물 중 수입은 15만 7,000TEU, 수출은 13만 8,000TEU로 나타났다.

항로별로는 한-중항로의 경우 여객은 전년 대비 약 50%(25만 8000명) 증가한 81만 1000명이 이용했고, 컨테이너 수송은 11% (2만 2000TEU) 늘어난 22만TEU로 집계됐다.

해양부는 한국과 중국간 새로운 항로 개설(인천-칭황다오, 군산-칭다오)과 최신형 선박투입, 선박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항공여객을 선박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.

금년에는 최근 개설된 인천-렌윈강 항로 등 한-중 14개 항로에 걸쳐 14척의 국제여객선이 운

항돼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.

한-일 항로의 경우는 지난해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21.7%(17만 9,000명) 늘어난 100만 5,000명을 기록해 국제여객선 취항 이후 처음으로 한해 총 여객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.

컨테이너 수송량은 전년 대비 28.7%(1만 7,000TEU) 증가한 7만 5,000TEU에 달했다. 이는 신규선박 투입과 쾌속선의 대형화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이용객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.

올해는 한-일 수교 40주년을 맞아 '한일 우정의 해'로 지정된 만큼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오는 11월엔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돼 여행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.

속초-자루비노간을 운항하는 백두산 항로의 경우 2003년 11월부터 자루비노-블라디보스톡 항로를 연장해 본격적인 러시아 극동지역의 해상 여객운송시대를 열었다. 지난해 5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한-러 수교 120주년 기념 문화행사에 임시여객선이 운항되는 등 지난 한해 약 6,000명(한국인 2,271명, 외국인 3,811명)의 여객이 이용했다.

앞으로 일본의 여행객 무비자, 중국의 선상비자 확대 등으로 주변국과의 국제여행이 자유로워지고, 우리나라의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 국제선박 이용객은 더욱 늘어나 올해안에 20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내다봤다. 이를 계기로 여객선사들의 서비스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